

# 과도한 입찰경쟁 지역 토목공사 잇단 발목

## 홍도항 정비·진도 수해복구 법정다툼 장흥 노력항 공사는 지역업체들 반발

건설 경기가 침체 되면서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해 전남지역 대형 토목 공사들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정책에 따라 지역 내 대형 공사가 줄어들면서 경쟁도 치열해져 입찰 과정에서 잦은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사를 따내기 위한 업체간 법적 공방으로 태풍 복구 공사 등 시공을 다루는 사업들도 제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전남도에 따르면 160억원대 신안 홍도항 정비공사(공사비 160억원)와 진도 군내천 수해 복구공사(28억원)가 법정 다툼을 보이고 있고, 장흥 노력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86억원)가 지역 업체 반발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태풍 피해에 대비해 발주한 홍도항 방파제 보강 공사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2순위 업체의 이의 제기로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법적 다툼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사에 공개입찰 결과 지난 1월 서울 소재 A건설을 1순위로, B토건을 2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1순위인 A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4일 2순위 업체인 B토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입찰공고 뒤 최종 입찰 등록 전에 인수합병한 회사의 신용도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됐다. A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다른 건설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신용도 통과점수인 92점에서 0.0001점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법상 개합일 이전에 합병이 이뤄진 만큼 신용도가 가장 낮은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탈락한 A건설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또 군내천 수해복구 사업은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며 목포지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 7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순위 업체가 제출한 토목 실적 중 일부가 부풀려졌다는 게 2순위 업체의 주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을 믿을 수밖에 없고, ‘1순위 업체와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지난주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야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노력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공사는 장흥군이 기존에 노력항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자 지역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군은 공사의 연속성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C업체에 공사를 맡기려고 했지만 지역 업체들이 공개 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 15억원 안팎이었던 공사비가 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면서 86억원으로 늘어 지역 업체들의 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가 많이 줄어들어 입찰 관련 법정 다툼이 크게 늘었고, 태풍 복구 등 일부 시급한 공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엔진음도 운전자 취향대로 현대·기아차 사운드 신기술 개발

고급 수입차에서나 들던 ‘기분 좋은’ 엔진음을 국산차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6일 엔진 소음을 줄이고 운전자가 원하는 엔진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항공기나 잠수함에 쓰이는 첨단 기술을 응용한 ‘능동 제어 소음저감 기술’(ANC)로, 차량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음과 흡·배기음 등 각종 소리의 주파수, 크기, 음질을 분석하고 스피커를 통해 역파장의 음파를 내보내 소음을 상쇄시킨다. ‘소리도 소음을 잡는 기술’로 불리며 현재 상용화 테스트 중이다. 주행 시 엔진 부밍 소음을 10~20dB 정도 줄일 수 있고, 소음 저감에 사용되는 특수기

구나 보강재를 줄일 수 있어 차체 경량화와 연비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엔진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행을 구현기술’(ASD)도 상용화를 위한 마무리 테스트 중이다. 운전자 맞춤형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ASD 기술은 내장된 사운드 조정을 활용해 일반 주행·스포츠 주행·정숙 주행 등 다양한 주행 모드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섀시, 버튼, 파워윈드 등 자동차의 각종 작동음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게 돼 운전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 수천억원 매출 명품 시계 수입업체 연간 사회기부는 달랑 시계 1개값

많은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명품시계 수입업체들의 연간 기부액이 고급 시계 1개의 판매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일,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6개 수입 명품 시계업체의 지난 5년간 기부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당 연간 평균 1500만원 수준이었다고 6일 밝혔다.

까르띠에·피아제·IWC 등을 수입하는 1위 업체 리치몬트코리아는 5년간 기부금 총액이 900만원이었다. 2011회계연도에는 15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이 업체는 2011회계연도 매출액이 3359억원, 영업이익이 154억원이었다. 2007~2011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196.1%,

137%로 성장했다.

스와치·오메가·브레게 등을 수입하는 2위 스와치그룹코리아는 5년간 매출이 3.2배, 영업이익은 97% 증가했으나 5년간 기부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1년 매출은 1538억원이었다.

2011년 매출 규모로 업계 3위는 국산 업체인 로만손으로 1~2위 업체에 못 미치는 매출 950억원, 영업이익 57억원(2011년 기준) 규모의 회사지만, 기부금은 5년간 3억6000만원으로 어떤 6개 수입 업체보다 많았다. 이는 7개 시계업체 기부금 총액(8억2900만원)의 4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들 7개 시계업체의 매출규모는 지난 2007년 2900억원에서 2011년 8000억원으로 2.8배 늘어났다. /연합뉴스



중소 ‘손톱 밀 가시 힐링센터’ 개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손톱 밀 가시 힐링센터’를 지역본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 하이트진로 신입·경력사원 50명 채용

하이트진로는 올 상반기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5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무관리직, 영업관리직, 생산관리, 연구 및 품질관리직 등으로 나눠 채용하며 12일까지 하이트진로 채용 홈페이지 (recruit.hitejinro.com)에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채용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 절차를 거쳐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주류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스펙’보다는 열정, 창의력, 성장가능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지원자 및 소외된 지방대생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 중견기업 92% “정부지원 못받아” 600개사 조사...“대기업 규제 적용 받아 애로”

중견기업 10곳중 9곳은 중견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여로 등을 조사한 결과 92.4%가 정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 내용이 미약하고 중견기업을 위한 특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들은 지원제도중 역점을 뒤야 할 분야로 자금조달

(46.9%), 시장 개척(20.8%), 인력 확보(17.7%), 기술 개발(14.1%) 등을 꼽았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뒤 새로 받는 정부의 규제도 경영 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은 19.2%였다.

애로사항중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13.3%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했고 ‘혜택이 더 크다’는 6.5%에 그쳤다. 48.2%는 ‘모르겠다’, 32.0%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LH, 빛그린 국가산단 분묘이전보상 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5일 빛그린 국가산단단지 개발사업 지구 분묘이전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빛그린 산단은 광주 광산구와 함평에 걸쳐 조성되는 개발지구로, 분묘보상은 올해 한시(4월5일) 이전에 연고자들이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분묘 연고자들은 안내문을 참고해 공사장에서 설치한 분묘표지판의 분묘번호를 확인한 뒤 공사에 연고자를 신고

하고, 분묘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개장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분묘조사 등 열람 및 개장신고는 분묘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이장 완료 뒤 필요서류를 구비해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액 산정은 정부통계자료에 의거 매 분기별로 사업시행자가 산정, 지급하게 된다. 문의(062-946-1981~3).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증산 지연 노-노갈등과 무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조가 6일 “증산협의 지연은 노-노갈등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회계문제로 조합비 횡령에 연루된 간부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작년 결정사항을 바꾸려고 난장판을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합비를 횡령한 간부들은 다수의 조합원과 상관이 없

고, 조합원들이 노-노 갈등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원대회가 장기화되면서 주간 2교대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노동조합은 발이 묶였다”며 “의장은 불가피하게 정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회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0%의 조합원이 조합비 횡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서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며 “마치 노동조합이 정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분

제의 본질에 잘못 접근한 것이고, 조합비 횡령 건은 노-노간 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공장 62만대 증산체제 가동은 지난 2월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노조 거부 정가대의원대회 일정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가량 진행되는데, 지난 달 18일 시작된 광주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전일 진행부와 현 집행부 간 고소고발이 오가면서 10 여일만에 정회가 선언돼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20.74 (+4.13)	▲ 코스닥지수 544.36 (+0.40)	▲ 금리(국고채 3년) 2.64% (+0.01)	▼ 원·달러 환율 1082.60원 (-4.40)
----------------------------	---------------------------	-------------------------------	-------------------------------

15일간 백두산약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약 무등산점 062-236-1187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